

'직장불자회 재정안정은 기획력과 정비태이다.' 직장·직능불자들이 살림 실천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아이템을 내놓고 있다. 목적사업을 위한 '모금'

형'에서 회비와 인등비로 충당하는 '자급자족형', 그리고 정부사업에 참여해 예산을 지원받는 '예산유치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모금 자급자족 예산유치형

직장불자회 살림살이 다양

● '모금형' =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회장 이종일, 이하 철불협)는 지난해 연말부터 서울역 등 전국 5곳 역사에서 노숙자 돕기, '철마는 자비를 싣고' 행사를 벌여 총 7백여만원을 모금, 서울 노숙자 쉼터 '보현의 집' 등 사회복지 시설에 성금을 기탁했다. 또 철불협은 임원들을 중심으로 철도대학 불교학생회 육성 기금도 조성했다. 기금은 장학금·법보시 등의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철불협은 안정적인 재정마련을 위해, 올 2월에 후원회 '수다타'를 결성했다. 현재 수다타 회원은 30여명으로, 향후 100명까지 늘려 철불협 발전기금 조성의 토대를 구축할 방침이다.

● '자급자족형' = 대민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 불자회기에 해당한다. 경찰, 구청, 감사원 등의 불자회는 업무 특성상 '후원' 또는 '모금' 방법이 부적절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들 불자회는 최대한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회비와 인등비, 사찰순례 특별보시금 등의 형태로 운영비를

에서 두드러진 특징이다. 선재마을의료회(회장 박재진)는 매일 인등법회를 병행, 회비와 함께 인등비 수입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있다. 개선된 재정을 바탕으로 경찰청불교회는 찬불가, 서예, 사경 등의 테마법회를 열어 문화강좌의 혜택까지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서대문구청 불심회, 감사원불자회 등도 업무 특성에 따라 운영을 자급자족하고 있다.

철불협 역사서 모금행사... 각종 봉사비 충당

정부기관 불자회 회비·인등비로 재정 확보

선재마을의료회 서울시서 예산지원 받아

● '예산유치형' = 직능불자회

우리 모임에선

서울시설공단 청정회 야외법회

서울시설공단 청정회는 27일 경기도 광주 각하사에서 야외법회를 봉행했다. 가족동반 법회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김근배 총무는 "조심자뿐만 아니라, 회원 불자들이 사시에불 등 순서에서 많은 공안을 느꼈지만, 이번 야외법회에서는 한글 뜻풀이를 첨가해 새로운 경험을 됐다"고 말했다.

대전시청 공불련 평화기원탑 점등

대전광역시청 공무원불자연합회는 25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대전불교사암연합회와 함께 창립 1주년 기념 법회 및 평화기원 탑등 점등식을 봉행했다. 대전시청 및 5개 구청 불자회로 구성된 연합회는 이날 법회에서 불심합양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참된 공복이 될 것을 다짐했다.

교사불자회 3개지부 연합성지순례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서울·경인지부와 전남지부는 26-27일 전남 고흥 능가사와 수도암 등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이번 순례법회에서는 보성다원에서의 차밭 체험과 지회별 친목모임의 장이 마련됐다.

"불교상담소 열어 보살행 실천"

교사불자회 군산지회 성귀자 회장

"회원 모집활동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해 불교상담소를 열어, 보살행을 실천하는 교사불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산지회 창립을 주도했다. "발품부터 팔았죠. 동료 교사들에게 물어 물어 불자 교사를 찾아 다녔습니다. 7명이었던 식구들이 이제는 30명이 넘습니다. 앞으로는 스님들의

지난 20일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군산지회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성귀자 씨(58·군산초등학교교장·사진). 성 회장은 군산 흥천사에서 창립법회를 열고, 향후 지회 운영의 포부를 이렇게 밝혔다. "그간 교사불자 모임이 군산 지역에는 없었습니다. 개별적인 신행활동에만 머물 수밖에 없었죠. 우선 흥천사를 원찰로 삼아, 회원들의 안정적인 신행활동 공간으로 마련할 생각입니다. 또 전 자체일을 통한 신규 회원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법문을 회원뿐만 아니라, 소속 학교의 동료 교사에게 이메일을 보낼 생각입니다. 포교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 회장은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강조했다. 불교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불교는 그 자체가 상담이라고 하고 과언이 아닙니다. 늦어도 올 하반기에 청소년 불교상담소를 열 생각입니다.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은 당연한 교사의 의무입니다."

군산지회는 올해 초 7명으로 모임을 시작, 현재 30여명이 가입해 있다. 김철우 기자

감정평가사 불자회 창립총회

봉은사에서, 초파일 '가족문화체험' 첫 행사

감정평가사 불자회가 창립됐다. 불자회 창립준비위원회(이하 창립준비위)는 26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창립총회 및 기념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창립법회에서는 서울·경기·인천 지역 감정평가사와 가족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에서 봉선사 조실 월은 스님(동국역경원장)은 법문을 통해 "균형 있는 생활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고 실천하라"고 강조했다. 창립 직후 감정평가사 불자회는 '부처님 오신 날 가족문화체험'

행사를 시작으로, 5월 7일 강남 방배동 청룡사에서 '연등 만들기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6월 6-7일 이틀간 경주 남산으로 성지순례도 떠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는 토지 및 정착물과 같은 일반적인 부동산·동산, 기타 재산 등에 관해, 그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전문직으로, 현재 불교아카데미 윤현수 이사장, 한상의 감사, 박범수 이사 등이 불자회 창립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철우 기자

단체장



보광사에서 정기법회 봉행

송도근 건설교통부 불자회장은 보광사 주지 종훈 스님을 초청, 23일 오전 정부청사 보광사에서 정기법회 열었다.



'성북구민 위한 법회' 열어

정후시 서울 성북구청 법륜회장은 28일 구청 5층 대강당에서 성북구사암연합회와 함께 부처님 오신 날 기념 '구민을 위한 법회'를 봉행했다.



성주 도솔암서 의료봉사

강경구 선재마을의료회 영남지부장은 26-27일 이틀간 경북 성주군 도솔암에서 순회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춘천 영천사에서 정기법회

정상현 춘천시청 도반회장은 영천사 주지 종운 스님을 법사로 초빙해 21일 춘천 영천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우리불자회는요

대구서부경찰서 범우회

3교대 근무, 밥 먹듯이 하는 야근,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일과. 하지만 우리 범우회원은 이것만은 잊지 않고 삽니다. '부처님 마음'으로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것. 또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처럼 더욱 믿음직스럽고, 친근한 경찰관상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범우회는 지난 2000년 5월에 창립했습니다. 처음엔 초라했지요 6명의 범우들이 식당에 모여 법회를 열었지요. 보살 것 없는 동호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욕심내지 않았습니. 범우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정기법회를 빠짐없이 봉행했지요. 그야말로 땀 흘려 열과 성의를 다했습니다. 봄·가을 성지순례를 떠났습니. 연등 수익금 전액을 줌

우리 범우회의 자랑거리는 단연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관내 노인시설 영락 양로원을 전·의경 불자회 원들과 한달에 한번씩 찾고, 무의탁 어르신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이불세탁, 목욕과 청소, 말벗 등 몸과 마음으로 봉사의 참맛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창립부터 벌여온 경찰서내 유치장 포교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법보시, 찬불가 부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치인과 가족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부처님 오신 날에는 가장 형편이 어려운 방법순찰대 전·의경 3명에게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연등 수익금 전액을 줌

범우 6명으로 시작... 활발한 봉사 자랑거리

'전 경찰관 불자회, 전 경찰서 법담화' 주력



◇ '우리 범우회의 포교전진 다짐.' 대구서부경찰서 범우회원들이 올 1월 대구 대영 웨딩부페에서 신년포교전진대회를 갖고,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 경승실장 원각스님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 대구지역 시청·구청 불자회와 합동법회도 열었습니다. 지금은 회원 수만 130여명이 넘는 범우회로 성장했습니다. 대구지방청 경찰서 가운데 가장 튼튼한 조직과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고 있다고 이 지역 직장불자회에서 칭찬들이 자자합니다. 이렇게 뿌리내리기까지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불자임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신도들의 성향 때문에 회원모집에 애를 먹었습니다. 또 신입회원들은 불교가 너무 어렵다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범우들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초교리도 함께 공부하고, 사찰을 찾아가 스님들께 묻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다들 자칭 '불교박사'가 됐다. 그리고 너스레까지 떨기도 합니다. 김철우 기자

더 좋은 일에 회합하는 범우회원들의 뜻을 모은 것입니다. 참으로 뿌듯했습니다. 한 일 한 일 정성껏 담아 만든 연등이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맺게한다는 생각이 회원들 모두 환희심이 났습니다. 올해 우리 범우회는 '참불자 되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 경찰관의 불자회, 경찰서의 법담화를 모토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강구하며 포교활동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올해 만큼은 반드시 서내에 법당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안정적인 신행 공간을 갖춰 언제든 법당에서 신심을 키울 수 있도록 기초교리도 함께 공부하고, 사찰을 찾아가 스님들께 묻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다들 자칭 '불교박사'가 됐다. 그리고 너스레까지 떨기도 합니다. 김철우 기자



남북평화통일 기원 및 영가천도 수록대재



귀의 삼보하옵니다.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날의 뜻 깊은 의미가 전쟁으로 인해 불안한 세계정세 속에서 더욱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유주무주수·륙·공의 모든 영가들을 위안하고 천도하는 여법한 수록대재가 원만 회향된다면 진실로 불교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종교의 역할을 우리 원용종이 앞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창종 23주년을 맞는 원용종의 이번 신록사 수록대재가 불안한 중생을 위로하고 모든 영가들을 원만히 천도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발원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되도록 모든 종도 및 불자들이 수회 동참하여 마음을 모아 야 하겠습니까. 총무원장 법륜 합장

- 증 정 영산 일공
- 부 증 정 유념 법신
- 원로원장 송산
- 봉행위원장 법륜
- 부 위 원 장 성관, 선진, 대월
- 봉 행 위 원 체관, 정관, 천호, 인관, 법원, 선덕, 성욱, 혜림, 체의, 불선, 보선, 진연, 정광, চে명, 은혜, 혜광, 대웅, 선명, 효계, 벽봉, 선덕, 석경, 혜민, 체도, 풍원, 보운, 성해, 홍재, 정광, 대천, 불선, 송월, 진운

행사안내

- 일 시 : 불기 2547년 5월 29일 목요일 오후 1시
- 법회장소 : 여주 신록사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2번지
☎ 031)885-2505
- 주 관 : 대한불교 원용종 총무원
- 문 의 : 서울 구로구 구로 2동 704-39번지
전화 02)853-0431, 0531
팩스 02)853-0532



大韓佛敎 圓融宗 수록대재 봉행위원회